

## 디너 코스

최진영

소설가

오석진(61)의 환갑을 앞두고, 가족들은 단독방에서 간략한 대화를 나눴다. 생일에 어디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김영선(57)은 집 근처 참치회 전문점을, 오나영(27)은 시내 외곽의 한상차림 한식당을 추천했다. 오민영(24)은 ‘무조건 소고기!!’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다음은 그들이 주고받은 메시지 일부.

김영선 구워먹자고?

오민영 스테이크면 더 좋고!!

오나영 4인 스테이크면 너무 비싸

오민영 그래도 환갑인데 소고기 먹자아!!ㅠㅠ

오나영 가고 싶은 레스토랑 따로 있어?

오민영 널 서치해볼게

김영선 오랜만에 가족 외식인데 룸에서 여유롭게 차치 코스 먹지?

오나영 (한상차림 사진을 올린 뒤) 이게 바로 잔칫상이지 없는 게 없음

오민영 스테이크 먹자아

오석진 그냥 집에서 먹으면 안 돼? 음식하기 귀찮으면 배달시켜서

김영선 집에서 먹는 거 자체가 귀찮고 그래도 환갑인데 배달음식은 아니지

오석진 내 생일이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김영선 참치회랑 한상차림 중에 당신이 골라

(몇 분 후)

오석진 그럼 난 중국요리 코스로

중국요리 전문점 ‘화양연화’의 매화룸. 동그란 테이블에 모여 앉은 네 사람 앞에 게살스프와 샐러드와 냉채가 놓였다. 오민영은 스프를 떠먹으며 투덜거렸다. 여기

코스 가격이나 스테이크 가격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오나영이 대꾸했다. 가격은 둘째고 양부 터 다르잖아. 오석진은 작은 술잔에 고량주를 따르며 가족들에게 말했다. 다들 한 잔씩 하지? 오나영은 칭따오를 오민영은 생맥주를 주문했다. 오석진이 말했다. 너희가 아직 모르는구나. 기름진 음식 먹을 때는 도수 높은 술 마시는 거야. 그래야 기름기가 싹 씻기지. 맥주는 헛배만 부르고, 일단 요리에 곁들이는 술이 아니야. 김영선이 이어 말했다. 이런 걸 맨스플레인이라고 하지 않나? 오석진은 김영선의 술잔에 고량주를 따랐다.

나까지 마시면 운전은 누가 하고?

그래도 내 생일인데, 당신도 한 잔 해야지.

그럼 운전은 누가 하느냐고 김영선이 다시 물었다.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 도수 높은 술은 금방 날아가. 오나영이 눈을 크게 뜨며 아빠! 하고 소리쳤다. 오석진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도 오석진은 ‘진짜 딱 한 잔 마셨다’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음주운전의 방점은 ‘딱 한 잔’이 아니라 ‘마셨다’에 찍힌다는 걸 모르는 사람처럼. 회사에서 본부장이 아무도 웃지 않는 징그러운 농담을 던지거나 납득할 수 없는 고집을 부려 아이템 진행을 어렵게 만들면 오나영은 아빠를 떠올렸다. 우리 아빠도 회사 다닐 때는 누군가에게 끔찍한 존재였겠지? 생각하면…… 서글프면서도 화가 났다. 방금 아빠가 한 말,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 또한 본부장이 자주 하는 말이었다. 본부장의 ‘괜찮다’를 진짜 괜찮음으로 만들기 위해 오나영과 동료들은 주말 특근을 하거나 계획에 없던 출장을 가거나 거래처마다 전화를 걸어 ‘죄송하지만’ ‘이번 한 번만’ ‘가능할까요?’ 같은 말을 반복해야 했다. 본부장이 저질러놓은 일을 수습할 때마다 오나영은 분노에 사로잡혀 생각했다. 일을 저 따위로 하면서 어떻게 본부장까지 간 거야? 사실 오나영은 이해하고 있었다. 일을 저 따위로 해도 알아서 처리해주는 (자기 같은) 직원들이 있어 본부장까지 갔다는 것을. 본부장은 회사를 그만 둘 생각 따윈 없었다. 그런 생각은 언제나 오나영 같은 사람들이 했다.

엄마도 마시고 싶으면 마셔. 운전 내가 할게. 오나영은 자기 앞의 맥주잔을 치우며 말했다.

됐어, 너 마셔. 난 별로 안 내켜. 김영선이 대꾸했다.

그냥 마시고 대리 부르면 안 되나? 오석진이 말했다.

그럼 대리비 나 줘. 내가 운전할게. 오민영이 끼어들었다.

당신은 내 말을 어디로 듣는 거야. 내가 술 안 내킨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김영선이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오석진에게 말했다. 여기서 집까지 대리비 얼마 안 나올 텐데. 오석진이 대꾸했다. 김영선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다. 식당 직원이 룸으로 들어와 테이블의 빈 그릇을 치우고 전가복을 담은 접시를 내려놓았다. 오민영은 돼지고기와 닭고기 위주로, 오나영은 오징어

와 야채 위주로 개인 접시를 채웠다. 오석진은 해삼 하나를 집어 먹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입에 안 맞아? 김영선이 물었다. 기다렸다가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오석진이 대답했다. 그럼 아빠는 오늘부터 할아버지야? 오민영이 물었다. 내가 어딜 봐서 할아버지냐. 법적으로도 65세 넘어야……. 오석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오나영이 물었다. 연금은 언제부터 받아? 설마 연금까지 당겨서 날린 건 아니겠지? 그 질문에는 약간의 가시가 돌아 있었다.

5년 전 오석진은 명예 퇴직했다. 어차피 부장 다음으로 올라갈 자리도 없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퇴직금을 받아서 주택담보대출금을 마저 갚았다. 오석진은 그동안 하던 일과 비슷한 일을 계속하길 원했으나 55세 경력직을 채용하는 회사는 없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남은 퇴직금이 약소했다.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대출을 받을 배짱 또한 없었다. 그래서 오석진은 주식을 했다. 약소한 퇴직금은 전부 사라졌다. 김영선은 오석진의 주식 투자와 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출이라도 갚았으니 다행이라고 여겼다. 오석진과 30년 간 부부로 살면서 김영선이 터득한 정신 건강 증진 방법 중 하나였다. ‘그나마 다행’부터 찾아내기. 그 시기 김영선도 오랫동안 다니던 출판사에서 나왔다. 연봉은 적고 업무는 많은 곳이었으나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보장해주었기에 꾸준히 다닐 수 있었다. 사장의 퇴사 압박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직원들끼리 똘똘 뭉쳐서 휴직한 사람의 자리를 지켜냈다. 직원들은 손수건을 돌리듯 돌아가며 휴직하고 복직했다. 사장은 젊은 시절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했던 사람이었으나 그가 생각하는 노동자의 카테고리에 ‘여성’과 ‘청소년’은 없었다. 퇴직 후 김영선은 국비 지원 직업교육을 받다가 도배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김영선의 침착하고 꼼꼼한 성격과 도배 작업은 잘 맞았다. 책을 만들 때보다 스트레스는 덜했고 성취감은 컸다. 김영선은 그 일을 80살까지 하고 싶었다.

그럼, 연금은 절대 지켜야지. 내가 날린 건 내 청춘뿐이야. 내 노년은 지켰어.

오석진의 대답을 듣고 오나영은 피식 웃었다. 오나영은 오석진을 ‘대책 없이 무모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뒤끝 없고 낙천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다. 오석진은 구김살이 없었다. 환갑이 되도록 구김살이 없다면 둘 중 하나 아닐까?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나 천성이거나.

그들 앞에 칠리새우가 놓였다. 오석진은 이번에도 새우를 하나만 집어 맛만 봤다. 근데 너 카톡 프사는 무슨 의미야? 김영선이 물었다. 프로필 사진을 바꾼 후 오나영은 비슷한 질문을 꽤 받았다.

알면서 뭘 물어.

결혼을 안 하겠다는 뜻이야?

알면서 왜 자꾸 물어.

근데 그걸 꼭 선언까지 해야 해? 이번에는 오민영이 질문했다.

결혼이 디폴트니까 선언이 필요하지.

결혼을 안 하겠다고? 이번에는 오석진이 질문했다.

아, 왜 자꾸 같은 걸 물어. 돌아가면서.

그래? 그럼 아빠는 찬성. 당신은?

우리 찬성이 뭐 의미 있어. 다 큰 성인한테.

김영선이 심드렁하게 대답했다. 오나영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부모를 쳐다봤다. 그럼 아이는? 아이도 안 낳을 거야? 그래도 자식은 있는 게 좋을 텐데? 김영선의 질문에 오나영은 더욱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지금 비혼 출산을 원하는 거야?

확실히 결혼은 여자한테 손해야. 근데 출산과 양육은 또 다르거든. 그건 결혼이란 개념이 완전히 달라. 엄마는 네가 그 경험은 해보면 좋겠거든.

내가 비혼을 선택한 이유가 뭘 것 같아?

가부장제? 경력단절? 믿을 만한 남자가 없어서?

오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다.

그거 다 맞는데, 가장 큰 이유는 돈. 아이가 생긴다면 나는 부모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하고 싶거든. 그러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결혼을 한다면 결국 나와 조건이 비슷한 사람이랑 하겠지? 그럼 돈 때문에 휘청휘청하겠지? 휘청휘청하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경험 대비 리스크가 너무 커. 혼자 사는 게 답이야. 그게 가장 예측 가능해.

오석진이 고랑주를 훌쩍이며 중얼거렸다. 이래서 저출산 이슈가 계속 나오는구나. 오나영은 콧방귀를 끼며 말했다. 아, 나는 그것도 진짜 이해가 안 돼. 있는 사람도 못 챙기면서 왜 자꾸 더 낳으라는 거야.

고추잡채와 꽃빵이 나왔다. 이번에도 오석진은 고추잡채만 조금 집어 맛을 봤다. 대체 무슨 요리를 기다리는 거야? 김영선이 물었다. 오석진은 질문과 다른 대답을 했다. 당신도 알지? 김태형이라고, 공주에서 양조업 크게 하는 친구. 었그제 개한테 연락이 왔는데 못 쓰는 양조장 건물 하나를 수리해서……. 김영선이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반대. 뭐든 다 반대. 당신 실패는 주식까지야. 그 이상은 없어. 오석진이 말을 이었다. 그런 게 아니고, 개는 나 돈 없는 거 알아서 투자하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아. 내 친구들 사이에서 내 별명이 땅거지야. 나는 여태 애들 만나면서 밥값 한번 내본 적이 없어. 내가 계산하려고 하면 다들 말리느라 바쁘다니까? 오나영은 묘한 표정으로 오석진을 쳐다봤다. 저런 말을 해맑게 웃으면서 한다고? 친구들이 땅거지

라고 부르는데도 아무렇지 않다고? 오석진의 말이 이어졌다. 아무튼 개가 양조장 건물을 문화 공간처럼 바꿀 거래. 커피도 마시고 독서모임도 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맘 편히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야. 젊은 노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나보고 같이 일할 생각 없느냐고 묻는데. 진지하게.

당신이 거기서 무슨 일을 해?

나 바리스타 자격증 있잖아. 직업 교육 때 따놓은 거.

평생 사무실에서 페이퍼만 들여다본 사람이 서비스직을 할 수 있겠어?

일단 해봐야 알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아빠, 근무 시간이랑 페이는? 그런 얘기도 했어?

그건 아직. 하겠다고 말하면 알려주겠지. 아마 최저로 주지 않을까?

식당 직원이 들어와 테이블에 꺾바로우를 담은 접시를 놓으며 메인 식사 주문을 받았다. 김영선은 마파두부덮밥, 오나영은 고추잠뽕, 오민영은 삼선우동, 오석진은 사천짜장을 골랐다. 우리 가족은 각자 취향이 뚜렷해서 참 좋다고, 우리는 메뉴 통일 이런 거 절대 없다고 오석진은 웃으며 직원에게 말했다. 직원은 세련된 미소를 건네며 주문을 확인했다. 그의 군더더기 없는 응대를 보며 오나영은 생각했다. 아빠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근데 아빠는 괜찮아? 자존심 안 상해?

자존심이 왜?

아니, 그래도 아빠는 회사에서 부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제와 친구 밑에서 최저시급 받으며 일하는 것도 그렇고, 나는 솔직히 아빠 친구들 말도 기분 나쁜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친구한테 땅거지가 뭐야.

오석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거에는 자존심 생각도 안 들어. 우선 난 땅거지가 아니니까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여태 했던 일이라면 모를까 완전히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건데 최저시급 받을 수도 있지. 아빠가 살아보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은 따로 있더라고.

어떤 거?

음…… 내가 최선을 다해 숨기려는 걸 상대가 억지로 들춰낼 때? 그럴 때는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는 느낌이라 본능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거든.

예를 들면?

방금 아빠가 말했잖아? 최선을 다해 숨기는 거라고. 그걸 내 생일에 내 입으로 말해야 할까?

오석진의 부드러운 대꾸에 오나영은 입을 다물었다. ‘대책 없이 무모한 사람’과 ‘뒤끝 없고 낙천적인 사람’ 말고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았다. 어쩌면 아빠는 본부장과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이제부터는 회사에서 서글픔 없이 화만 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더불어 궁금해졌다. 본부장이 최선을 다해 숨기고 있는 건 뭘까.

메인 식사가 들어왔다. 앞선 요리를 배부르게 먹은 오나영은 고추잠뽕을 두어 젓가락 먹고 말았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듯 호기롭게 사천짜장을 먹는 오석진은 전혀 노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30년 넘게 했던 일을 놓고 이제 다시 최저시급의 세계로 들어설 오석진을 바라보며 오나영은 ‘백세시대’라는 말을 생각했다. 정말 백 살까지 산다면 오석진은 이제 절반 조금 넘는 인생을 살았다. 황혼보다 정오, 디너보다 런치에 더 가까운 나이.

생일 축하해, 아빠.

오나영이 맥주잔을 들며 말했다. 오민영도 생맥주잔을 들었다. 김영선은 물잔을, 오석진은 고량주잔을 들었다. 네 개의 잔이 동그란 테이블 한 가운데에서 가볍게 부딪혔다.